



창세기 1장(13)

## 계절, 날, 해 그리고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14, 15)

하나님께서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지구 밖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지으신다. 첫째 날 지으셨던 에너지의 일차적 근본인 빛이 하던 일을 광명체라고 하는 장치로 전환시키신 것이다. (빛과 광명체와의 차이점과 선후관계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빛이 창조되던 때와 같이 광명체를 만들 때도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지금 광명체로 전환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할 때는 없었던 단어가 광명체들을 만

들며 처음 출현하는데 바로 징조(signs), 계절(seasons), 날(days), 해(years)이다. 즉 이 광명체들에게는 빛과는 다른 또 다른 목적이 몇 개 더 부여된 것이다.

그 가운데 먼저 계절, 날, 해를 보자. 이 단어들은 의미하는 그대로 시간의 주기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 즉 시간을 만드시고 이들로 인해 시간의 주기를 정하셨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날”은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등장했다. 지구가 자전하며 시작한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를 말한다. 반면에 계절과 해라고 하는 주기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진 지구가 네 바퀴째 자전할 때 훨씬 더 무거운 큰 광명체인 태양을 만들며 지구가 그 주위를 공전하며 해라고 하는 새로운 주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전과 공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직선의 인생을 달리게 하시는 창조자의 특별한 지혜다.

실제로 우리는 해, 달, 별의 광명체들을 통하지 않고는 시간의 주기를 정할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이들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정확한 주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정확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사람끼리 서로간의 약속을 할 수 있기 위해선 보편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확성과 보편성 이 둘을 만족하는 것은 해, 달, 그리고 별들을 제외하곤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지구는 매일(약 23시간 56분 04초) 정확히 자전하며, 달은 한 달(약 27.3일)에 한 번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지구는 매년(약 365.2564일) 태양 주위를 정확히 공전한다. 그 공전 거리는 무려 10억 km에 달하는데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은 우리가 만든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하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주기에 대하여 특별한 협약이 없었더라도 누구나 이 정확하고 보편화된 하루와 일년이란 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주기가 빨랐다 느렸다 하며 불규칙하다면 결코 시간의 주기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시간의 주기 가운데 계절(seasons)도 독특한 표현이다.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은 추위와 더위와는 구분된다. 추위와 더위는 온도의 차이지만, 사계절은 낮의 길이에 따른 구분이다. 실제로 추위와 더위는 창조주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한다(창 8:22).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발생할만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이에 따른 창조과학자들의 여러 이론이 있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는 것이다. 추위와 더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땅

“이 별들 때문에 시간의 주기가 생긴 것이 아니다. 시간과 그 시간의 주기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 먼저이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광명체를 보며 시간과 별들만을 보면 안 된다. 이를 초월하신 창조자를 보아야 한다.”

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계절은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와 23.5도 기울며 태양주위를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기울기는 참으로 적절한 기울기이다. 만약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적도는 너무 덥고 극지방은 너무 추워 살기에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다면 그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너무 덥지만 다른 편은 너무 추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에너지를 지구에 골고루 전달해줄 수 있는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는 특별한 설계라 할 수 있다. 지구를 23.5도로 기울이므로 그 단순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의 주기 속에 낮과 밤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꽃이 피고 지는 다양한 지구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광명체들이 정확성과 보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간의 주기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편성과 정확성을 갖춘 별들을 특별히 설계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를 시간의 주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자세의 차이점을 이해하겠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 별들 때문에 시간의 주기가 생긴 것이 아니다. 시간과 그 시간의 주기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 먼저이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광명체를 보며 시간과 별들만을 보면 안 된다. 이를 초월하신 창조자를 보아야 한다.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별들을 모며 별을 창조하신 분을 찬양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 8:3)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시간의 잣대로써 눈에 보이는 별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창조자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더군다나 마치 코일처럼 주기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주기인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운 피조물인 이 주기들도 벗어나지 못한다. 두 개 모두 창조자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이 주기를 제쳐놓고 살자고 하겠는가?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세기 1장(14)

## 징조의 기능으로서 광명체

광명체들을 만들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징조(sign)'다. 나머지 계절, 날, 해는 시간의 주기들이 반면에 징조는 독특한 단어다.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징조로 별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다. 어떤 면에서 앞의 시간의 주기와 징조는 상반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기란 변함없는 정확한 시간이지만, 징조는 오히려 이 변함없는 상태를 깨뜨리는 독특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마 2:9).

이 별은 매일 보던 별이 아니라, 특별하게 등장한 별이었고 어떤 특정한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는 신기한 상황이었다.

또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 징조들 중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9)

이 상황도 날마다 보던 일반적인 별의 운동이 아님에 틀림없다. 항상 밝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평상시의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 별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도록 만드셨다. 이 별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누가 감히 지구나 달의 자전과 공전에 간섭하라? 그런데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별들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 언제든 개입하실 수 있다. 창조란 단어를 보며 이런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광명체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심어놓으셨다. 하나는 정확한 시간의 주기로서, 또 다른 하나는 원하신 때마다 개입하시며 창조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는 창조자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완벽한 별들의 운동과 이 별들 가운데 목적에 따라 들락날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뿐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렇게 하셨다. 실제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였고, 다시 오실 때에도 창조로 별들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지구가 매일, 매년 도는데 새 아침, 새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창조자를 아는 우리에게겐 그렇지 않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주기를 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어느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새해가 의미 있어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우리에게 하루와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은 시간과 시간의 단위를 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 새로운 주기에서 들락날락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모든 것이 막연해진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도 하나님이 마음에 떠났을 때를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전 1:5)고 하며 헛된 마음을 표현했다.

인생은 직선이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기를 만드신 것이다. 이 매일과 매년 만나는 주기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주기가 되는 것이다.

창조이래로 지구는 수십억 번이란 막연한 진화론적 횡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번 태양주위를 돌았다. 진화론은 이 막연한 숫자를 말하며 인간이 찰라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며 마치 겸손한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말이다. 우리의 백 년 인생은 우주 역사의 1%나 장식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이와 같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귀한지를 아는 것은 오직 진짜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공룡 뼈의 연대측정 그리고 진화론

공룡의 화석이 아니라 뼈나 조직들이 계속해서 발견 되고 각종 화석들로부터 생체 물질들이 계속 발견 되고 있다. 만약 이 공룡의 뼈들을 탄소 동위원소로 연대측정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는 창조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수억 년이 아니라 수만 년(22,000~39,000년)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수천 년이 아닌 이유는 초기 탄소농도를 현재로 가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임). 지난 2012년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와 미국 지구물리학 연합회(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연합 국제학회에서 9마리의 공룡 뼈들을 방사성 탄소로 연대측정한 결과가 발표 되었다.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의 10명의 과학자들이 텍사스, 알래스카, 콜로라도, 몬타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발견 된 아크로칸토소러스(Acrocanthosaurus), 알로소러스(Allosaurus), 해드로서러스(Hadrosaur), 트라이세라톱스(Triceratops), 아파토소러스(Apatosaur) 등 9마리의 공룡 뼈들을 측정 한 것이다. 여기서 분석된 공룡 샘플들은 뼈 자체, 치아 성분과 같은 인회석(biapatite), 콜라겐(collagen), 탄화된 뼈 조각, 그리고 산성 유기질인 후민산(humic acid) 등의 다양한 형태들이었다.

문제는 지금 그 학회의 웹사이트에서 그 발표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http://www.asiaoceania.org/aogs2012/mars2/pubViewAbs.asp?sMode=session&Id=2&submit=Browse+Abstracts>에서 5 번이 없어졌다). 이 학회는 논란이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심지어 연구자들이나 학회 임원들도 모르게 삭제해 버린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진실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게 될까 두려워 조용히 처리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발표 내용이 고스란히 youtube에 남아 있다("Carbon-14 dated dinosaur bones - under 40,000 years old"란 제목을 유튜브에서 찾으면 된다). 진화론자들은 공룡의 진짜 나이를 숨기고 있다.

공룡의 연대 측정치 외에도 화석들이 노아홍수의 증거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 2003년에도 창조과학자들이 미국 지구물리학 연합회에 보고한 석탄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릴 것 없이 같은 연대를 보여 주었다. 석탄과 공룡 뼈 속의 방사성 탄소는 진화론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성경 역사가 사실임을 분명히 해 준다. 최근, 공룡의 뼈가 화석화 되지 않고 보존된 것뿐 아니라, 그 속에서 혈구, 혈관, 세포, 단백질 등이 발견 되었다는 보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종 화석들에서도 생체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수억 년 동안 남아 있다는-진화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보고도 계속 늘어간다.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쓰러지지 않도록 인간 힘을 쓰고 있다.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위협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될 수 없다.

이 공룡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세계 도처에 있는 박물관이나 대학에 소장하고 있는 공룡 화석들의 방사성 연대측정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뼈들이 발굴 될 당시 굽어 낸 부스러기들에서 방사성 탄소를 분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그 분석 결과들이 우리 결과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곳에 있는 미디어와 시민들께서 고생물학자들과 큐레이터들과, 대학 교수들과, 정부 과학 연구소들이 공룡 잔존물들에서 방사성 탄소 분석을 해 보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지구 역사와 그 화석들의 나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노아홍수 심판,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부정한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성경 역사를 통했을 때만 올바르게 이해 될 수 있다. 결국 진화의 믿음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따라서 그런 진화의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는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되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 된다. 또, 성경의 역사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구원과 관련 된 기록을 믿을 근거도 사라지고 만다.

사탄은 “정말로?”라는 질문으로 첫 사람을 속였다. 사탄은 지금도 진짜 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사용하여, 동일한 질문으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중에 공룡은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던 소재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대 측정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공룡은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런 사실이 널리 소개 되어 교회가 성경에 더욱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수백만 년과 진화를 믿는 크리스천 학자들도 성경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대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이제만 부회장은 지난 11월 25-29일 Grace International Seminary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해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만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인데 지난 번과는 달리 닷새 동안 총 14개의 주제로 훨씬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와 신학생들이었는데 2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종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10년 사이에 교인이 인구의 2%에서 8%로 증가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부흥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진화의 반대는?' 세미나 주제를 다룰 때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 주제에서 진화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던 각 나라의 예들을 보며, 이 부분을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세미나를 갖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대만뿐 아니라 중국까지 교회가 진화론을 벗어나 성경이 사실됨이 전파되는 귀한



14기 창조학교 수료  
11/12/2013

기회가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중국에 마음을 품은 다음 사역자도 일어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 시카고 지역 창조과학학교 종강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14기 노스필드장로교회 (담임 이범훈 목사)와 제15기 한미장로교회 (담임 주용성 목사)에서 각각 종강하였습니다. 14기에는 10명이 등록하여 모두 수료하였고 15기에는 19명이 등록하였지만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모두 바쁜 가운데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보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카고 교회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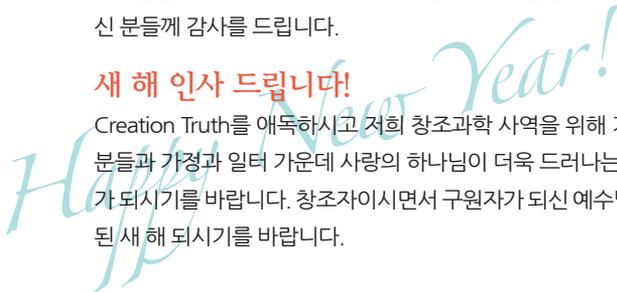
제17기는 2014년 9월에 그레이스교회(담임 원종훈 목사)가 호스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의: 이동용 박사 (630-400-6114)

## 제 5기 창조사역 집중훈련

제 5기 창조사역 집중훈련(ITCM)이 12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8주 동안 진행 됩니다. 차세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훈련생 7명이 참가합니다. 훈련생들 뿐 아니라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새 해 인사 드립니다!

Creation Truth를 애독하시고 저희 창조과학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주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복된 새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기 창조학교 수료 11/13/2013



지난 해 9월에 발견된 금세기 최고라고 알려진 혜성 이름이다. 이 아이손(ISON) 혜성은 11월 29일 드디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마침내 반환점(근지점)을 돌아 태양으로 부터 멀리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구 상에서 가장 관측하기 좋은 시기는 지난 11월 19일 이었고 다음 기회는 태양을 돌아 나오는 12월이 된다. 맑은 밤 하늘 이라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아이손 혜성은 11월 29일을 정점으로 태양 앞 110만 km 까지 접근한 뒤 태양을 스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때 돌진하는 원주 속도는 시간 당 약 20만 km(12.5만 MPH)로 추정된다. 미 항공우주연구원(NASA)은 아이손 혜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지난 11월 22일 그 위치와 모형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혜성은 먼 거리에서 태양을 선회하기 때문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유성들이다. 지난 3월 판스타스 혜성을 비롯해 2001년 발레리 혜성, 1997년 헤일-밥 혜성, 1996년 하쿠타케 혜성, 1994년 슈메이커-레비 혜성, 1986년 헬리 혜성 등 역사와 더불어 지구 상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이 때 마다 떠들석하였다. 이는 대부분 혜성이 지구에 가깝게 접근하거나 지구 궤도를 통과할 때 멋진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성이 지나가며 남긴 먼지와 그 잔재는 궤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태양풍에 의해 밀려나고 그 궤도 사이를 지구가 통과할 때 대기 마찰로 불타면서 지구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별뿔들이다.

큰 혜성의 직경은 50 km에 이르며 핵으로 불리는 본체는 비교적 작다. 그 핵은 물의 밀도 보다 작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대신 코마(coma)라고 불리는 핵을 둘러싼 구름(밝게 빛나는 가스 덩어리)과 이온입자와 먼지로 이뤄진 긴

꼬리를 볼 수 있다.

혜성들이 그들의 궤도로 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의 에드먼드 핼리는 핼리 혜성의 주기를 계산하고 다음 출현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이후 혜성들의 주기에 따라 단주기(200년 미만) 또는 장주기(200년 이상) 혜성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주로 얼음으로 구성된 이 유성들은 태양에 접근할 때 얼어붙은 물질들이 증발(승화)하면서 긴 꼬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혜성들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진화론적인 시대로 태양계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면 혜성은 이미 오래 전에 고갈되었어야 한다. 특별히 단주기 혜성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혜성은 풍부히 많다. 이런 모순을 설명하려고 오랜 나이를 믿는 학자들은 반경 50만 AU(1 AU =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에 오르트 구름(Oort Cloud), 즉 혜성의 밀집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로 부터 오랜 세월 동안 혜성이 생성되는 것으로 여기고 믿었다.<sup>1-2</sup> 칼 세이건과 드루이안(Ann Druyan)은 <혜성>이라는 책에 “매년 이 가상의 오르트 구름에 대한 특성과 기원 그리고 진화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간되었으나 실제 오르트 구름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한편 주기가 짧은 단주기 혜성들은 명왕성(40 AU) 궤도로부터 시작하여 50 AU에 이르는 원반의 쿠퍼벨트(Kuiper Belt)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말하지만 쿠퍼벨트를 구성하는 수백만개 유성들은 혜성과는 그 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구차한 설명이 되고 있다.<sup>4</sup>

결론적으로 아직도 혜성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가 그 만큼 젊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창1:6-8)라고 하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나 강물 같은 지표수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 즉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말해 준다. 그리고 시편기자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 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으로다”(시148:4-5)라고 하늘 위에 물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성경말씀에 비취 볼 때 우주 먼 하늘에 물(또는 얼음)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성경 말씀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들이 되는 것이다. 

[1] Oort, J., The structure of the cloud of comets surrounding the solar system and a hypothesis concerning its origin, Bull Astron. Inst. Neth. 11: 91-110,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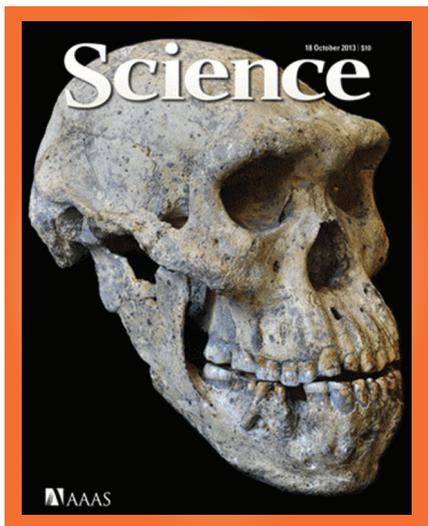
[2] Morbidelli, A., Origin and dynamical evolution of comets and their reservoirs, Retrieved 2007-05-26.

[3] Sagan, C. and Druyan, A., Comet, Ballantine Books, 1985.

[4] Lyttleton, R.A., Mysteries of Solar System, Oxford, Clarendon, 1968.



# 새로운 인간 화석은 사기에 가깝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지난 12월호에 실렸던 “과학자들을 놀라게한 화석”에 대한 후속 기사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에 얼마나 신뢰를 둘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팀의 고고학자들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된 인간 화석들이 조지아(Georgia)란 나라에서 발견되었다고 Science지에 발표했다. 총 5개의 두개골들이 한 구덩이에서 발견 되었는데 이 팀은 사이언스지에서 “두개골 5”라고 명명한 화석 파편이 고대 인류들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The Guardian)

에서는 드마니시(Dmanisi)에서 연구자들이 사람 화석 중에서 “놀라운 한 인간 조상의 화석화된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더 많은 반론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연구팀이 발견한 5개의 두개골과 두개골 파편들 중에 일부는 사람 뼈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두개골 5”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유인원과 유사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의 저자들은 “두개골 5는 아마도 거의 현대인의 몸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성인의 머리 뒤쪽 부분의 뼈인 것 같다.” 라고 기술했다.

그렇지만 그 샘플과 “아마도” 사람의 뼈가 맞는 것 같다고 한 주장의 연결고리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뼈들은 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언급한 7가지의 사항들을 보면, “두개골 5”가 특이한 사람이란 주장은 진화론 전문가들이 사람 화석을 꼬리없는 원숭이(ape) 화석과 조합한 또 다른 한 가지 실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개골 5”가 사람의 화석이 아님을 보여주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두개골과 매우 다르다. 사이언스지의 저자들은 “두

개골 5의 외형은 익히 알려진 턱이 튀어나오고 작은 크기의 머리를 가진 호모(Homo)의 화석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 “두개골 5”는 사람의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숭이의 두개골이었을까?

2. 사람 머리 후면 부분과 너무나 연결성이 없다. 저자들의 문구에서 “아마도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

3. 머리 크기가 원숭이와 매우 유사하다—사람보다는 확연히 작다. 약 546cc 정도로 고릴라나 원숭이로 밝혀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크기와 유사하고, 사람의 평균값의 약 반 정도의 부피이다.

4. 심각하게 조립된 원숭이와 유사한 큰 턱을 갖고 있다. 이 연구팀이 함께 일한 쥐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에서 발간된 뉴스를 따르면 두개골 5는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화석들 중에 “얼굴이 가장 크고, 턱과 치아는 가장 많이 조립되었고, 머리는 가장 작았다”라고 했다.

5. 두개골 5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연대도 명백하지 않은 서로 다른 화석들과 합쳐졌다. 연구 저자들은 “더욱이, 크고 강한 턱과 치아는 자바(Java: Trinil / Sangiran)에서 발견된 초기 호모 에렉투스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자바원인에 대해선 추상적인 묘사를 한다. “그룹내 변이 안에서의 일시적인 변화와 초기 홍적세(Pleistocene)의 계통 발생적 위치에서 자바원인은 매우 불확실하다.” 저자들은 두개골 5가 사람의 것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든다.

6. 두개골 5에 대한 연구원들의 접근 방법이 과거 사기성이 있거나 미심쩍은 발견들과 비슷하다. (지면상 생략)

7. 유인원의 특징들로 가득하다. 두개골 5는 U자 모양의 치아(사람은 포물선) 구조, 턱, 코, 턱과 목의 큰 근육 등이 사람과 다르다.

“두개골 5”가 고대 사람들의 것이라는 가정이 그들의 논문과 뉴스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 가정을 반박하는 위의 일곱 가지 사항들은 무시한다.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은 두개골 5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의 틀로부터 자유롭다. 그들은 현재 해석에 대해서 건전한 과학적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약 드마니시 두개골 5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인류 진화를 흥미롭게 했던 일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개골 5는 단지 원숭이 종류의 두개골에 불과한 것이다. 

# 빙하시대 탐사

6/24-27, 2013

##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빙하탐사 혹은 창조과학 탐사를 추천합니다. -조유경 사모<뉴욕예일장로교회>

사실에 놀랐습니다. ...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녀와 교회와 청년들을 꼭 한번 빙하시대 창조과학 탐사 여행의 기회를 갖게 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며 노트를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들으며 놀랍고 궁극적인 주님의 영광임을 알며 감사했고 ... 감사합니다. -김금옥 목사<에버그린장로교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 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미션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하나님이 우릴 창조하신 아버지 이시다’라는 증거는 새삼 새롭게 맘에 다가왔습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끼어 있었던 마음에 확신을 다시 얻습니다. ... 확신 얻고, 행복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박 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

성경을 아무 의심도 없이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히 따질 필요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너무 무지하게 알고 있었고, 그 진실과 진리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는지 배웠습니다. -박 데보라 사모<뉴욕한마음침례교회>

창조부터 노아홍수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제대로 정립 되어서 어느 곳 에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답변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박명심 사모<뉴욕신일교회>

자유주의 계통 신학 사상의 영향은 ... 평생 목회에 불확실한 성경관으로 목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남은 목회를 하나님 창조에 대한 확고한 성경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지인식 목사<뉴욕제일감리교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과 마음 다시 한번 온 몸으로 느끼면서 몸서리 치게 눈물과 감격과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온종일 내 영혼을 적신다. -지정은 사모<뉴욕제일감리교회>



탐사여행 모든 일정과 강의 내용들이 기대 이상으로 감동적이고 실제적으로 전도 시의 반대 질문들에 시원하게 답 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가장 큰 유익은 2세들에게 전해줄 진화론을 깨뜨릴 수 있는 큰 지혜와 서적들... -안승백 목사<뉴욕은유한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가면 늘 힘이 있습니다. ... 살아계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창조 하시고 창조의 이야기를 그리고 구원해주신 구속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렵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열심히.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노아 홍수에 대해 많은 혼돈과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마치 영화라도 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도인 목사<새소망장로교회>

창조 과학 탐사여행 세미나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이 해결 되어야 모든 성경의 의문들이 풀릴 수 있으며 많은 질문들을 해결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참여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하정민 목사<햇불선교회>

성경적 진리 안에서 더 많이 창조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시간이었다. ... 창조 과학을 통해서 계속 성경적 창조주의 신앙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오태환 목사<뉴욕은총장로교회>

이전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지훈 목사<뉴욕주심교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찬양하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고 버스 안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통해 창세기의 역사를 들으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안관현 목사, 안순환 사모<뉴욕평강교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사건도, 변화도 움직임도 있을 수 없군요? -김상태 목사<주님의교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갖고 마중물 신앙으로 우리의 2세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현영갑 목사<뉴욕샘물장로교회>

진화론 대 창조론의 싸움이 아니라, 진화론 대 성경 진리와의 싸움임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진리의 수호자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용사가 되고자 합니다. -장규준 목사<리바이벌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 1/1 순복음 기도원(이재만)
- 1/5-8 안산동산교회(이재만), 한국
- 1/13-15 YWAM DTS(최우성)
- 1/16-18 창조과학탐사 (YWAM DTS), 최우성

- 2/17 두란노서원 (이재만), CA
- 2/20-23 Liberty seminary(이재만), VA
- 2/24-26 창조과학탐사 (진새골), 이재만
- 2/24-27 창조과학탐사 (광명우리교회), 최우성

- 3/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3/3-6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 3/9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3/16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3/23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4/5-6 Anza-Borrego Desert (이재만, 최우성), CA
- 4/7-13 창조과학탐사 (창조과학 대전지부), 이재만
- 4/15-17 창조과학탐사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김선욱
- 4/24-26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14 포모나 인랜드교회 (이재만), CA
- 5/15-17 창조과학탐사 (충현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